

Magnificat - 2022년 3월. 함께 기도하는 문자...

(자동 번역 구글 번역 - translate.google.com)

우리 모두는 Magnificat의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1장 46-55절)에서 이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우리 각자는 그것을 읽고 우리 자신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을 시작으로 우리는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성찰을 나눌 것입니다.

“Magnificat에서 동정녀 마리아는 이기심, 교만, 자신의 이익 추구에서 나오는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깊은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누군가가 하느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도록 허용하고 자신의 존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허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늘 우리 마음과 사회의 문을 두드려 생명과 행복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하심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Mary's Magnificat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노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자신의 작은 자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으로부터 인간 역사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묵상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시선을 확장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아 복음의 다른 노래들(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의 베네딕투스, 시므온의 짧은 글)과 같이 간구와 소망은 기쁨과 축하를 낳습니다. 성취의 길. 하느님의 자비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면 우리도 눈을 뜨고 우리 시대에 그 자비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기념하는 새 찬송가를 작곡하도록 초대받습니다.